

미시전자공학기술의 도입에 따른 많은 노동문제들이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문제들은 전산화와 로봇화 그리고 수치제어(NC)공작기계의 도입에 따른 대폭적인 노동절감, 습득된 기능의 무용화,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의 증가 등이다.

신기술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주요과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어느 단계에서 신기술의 도입에 대해 알게 되는가 하는 것과 신기술도입에 관한 경영의사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술협약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이 일본 미국과 달리 유럽의 특성이다. 여기서는 영국 경우를 살펴본다.

사회민주주의계인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기본적으로 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



국제상식

을 취하고 있다. TUC는 신기술이 직접 도입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력이 감축되거나 기존 노동자의 직무가 불필요해지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산업 또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나 장기적으로는 영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차원에서는 임금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UC의 이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영국이 처해 있는 경제상황이 작용하고 있다. 영국 경제는 그동안 침체

와 경쟁력 약화로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따라서 노조는 기술도입문제에서 사용자와 충돌을 피하고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유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신기술도입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실

제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에 따라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신기술협약안(NTAs)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규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기술 도입에 관하여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것 △사전에 관련된 정보를 조합대표에게 제공한다는 보증 △고용보장을 포

영국TUC의 신기술협약안

함한 생산과 고용에 대한 계획의 합의 △훈련·재훈련에 대한 합의 △노동시간 단축과의 결부 △신기술 성과의 노동자에의 배분 보증 △노동강화·관리지배 강화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보증 △건강과 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

관한 협약은 엄청나게 많이 체결됐다. 예를들면 78년에 주요일간지를 대상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것에 따르면 1천5백명의 상용 인쇄공이 84년 3월까지 일자리를 보증받았다. 영국의 우편노동자는 77년에 고용보장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노동시간을 주 37.5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영국과 달리 서독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신기술의 구체방식으로 법률에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의 TUC가 신기술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노조도 신기술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다른 나라 노조의 경험을 음미해 봐야 할 때다.

신기술 성과 노동자에 배분 보장

준 △노사합동기관에 의한 신기술 도입후의 진전상황에 대한 점검 등.

80년 신기술에 관한 TUC의 중앙협약안은 영국산업연맹(CBI)의 거부로 성립되지 않았다.

전국수준과 달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에서의 신기술도입에